

경선룰 대체로 수용…배심원단 구성 방식·규모 ‘주판알 튕기기’

〈여론조사 50% + 배심원단 투표 50%〉

새정치연합 광주시장·전남지사 후보 경선전쟁 돌입

경선판도 뒤흔들 배심원단 시행 규칙 놓고 갈등 예고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후보 경선 방식으로 여론조사와 배심원단 투표를 각각 50%씩 반영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후보들은 대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은 보였다.

하지만 각 후보들은 사실상 국민 선거인단 투표인 배심원단 구성에 대해 족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배심원단 규모와 구성 방식 등에 따라 경선 판도가 훌렁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선, 재선 도전을 선언한 강운태 광주시장은 “기본적으로 당이 정한 경선 방식에는 이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다”며 “배심원단 구성과 관련, 중앙당의 무작위 선정보다는 많은 유권자가 배심원단에 참여해야 새 정치에 부합하는 경선 방식이 될 것”이라며 말했다.

이용섭 의원은 “100% 여론조사를 주장했는데 상대 후보도 있으니 수용하고 가야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나타냈다.

윤장현 전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은 “새 정치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는

를 대폭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 반적인 배심원단 투표와는 성격이 다르다.

문제는 배심원단 구성 방식과 규모다.

일단 새정치민주연합은 5000~1만 명의 배심원단을 구성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중앙당에서 배심원단을 선정, 특정 장소에서 투표를 할 경우, 최소 1명의 배심원에 5만원 이상의 참여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재정적인 부담이 크다.

자율적인 참여 의사를 보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배심원단을 선정하는 방식은 흥행은 보장될 수 있으나 동원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당내 일각에서는 중앙당이 여론조사를 통해 5000명 정도의 배심원단을 구성한 뒤, 이들에게 후보들의 TV 토론을 시청하게 한후 지지도 조사를 하는 ‘공론조사식 배심원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 방법도 흥행 측면에서 취약한데다 여론조사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 약점이다.

이처럼 배심원단 구성을 놓고 각 후보 진영의 쟁점이 다르다는 점에서 앞으로 시행 규칙을 놓고 상당한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안철수 애당대표로 본회의 첫 참석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운데)가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한길 공동대표(왼쪽)와 맨 뒷줄에 나란히 앉아 전병현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토론 등 지켜보게 한 뒤 지지도 조사

배심원단 5000명~1만명으로 확대

■ 공론조사 방식 배심원제

공론조사란 숙의형 여론조사를 말한다. 집단 또는 전문가 토론회(TV토론회)를 보게 한 뒤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인 여론조사는 후보나 정책에 대한 배경지식 없이 이뤄져 선호도 조사에 그치는 반면 공론조사는 후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상태에서

설문을 실시하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가 된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단일화 경선에서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와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공론조사를 한 바 있다. 또 배심원제란 원래는 법정 용어로 국민참여재판을 의미한다.

하지만, 선거에서는 국민 또는 시민 중 대표집단을 무작위 또는 좌우적으로 추출, 이들이 후보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통상의 배심원제는 조사 대상 표본이 소규모로,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경선에 배심원단 규모를 5000~1만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때문에 이번에 도입하려는 경선 방식은 ‘공론조사 방식의 국민경선’이라는 용어가 정착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박지경기자 jkpark@

교사→건설사 대표→택시운전→구의원 도전

목포 20년 거주 40대 결혼 이주여성 출사표

6·4 지방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전남지역 선거 전도 본격적으로 불붙고 있다.

특히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전격적으로 ‘통합 신당’을 창당하면서 광역·기초의원 등 지방의원 예비후보자들이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이색 출마자들도 줄을 잊고 있다. 또 과거와 달리 20대와 30대의 젊은 후보들이 많아지고, 전문가 그룹도 상당히 포진돼 이들의 선거 결과도 주목된다.

◇ 20~30대 젊은 층 크게 늘어= 1일 광주시·전남도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출마예정자는 779명이다. 이중 20대가 2명, 30대가 29명으로 20~30대가 전체 예비후보의 5% 정도인 31명을 차지하고 있다.

20대 2명은 광주 북구의원 선거에 출마한 한현숙(29)·마정환(29) 예비후보다. 이들은 광주·전남지역 기초의원 선거 최연소 예비후보다. 광역의원 선거에는 20대 도전자가 아직까지는 없으며, 30대의 도전이 거세다.

광주시의원 예비후보 중 30대는 7명, 전남도의원 예비후보는 3명이며, 이 가운데 여성 예비후보는 각각 1명씩이다. 광주 기초의원 선거에는 30대가 9명(여성 5명 포함), 전남 기초의원 선거에는 10명이 도전장을 냈다. 젊은 층 예비후보의 상당수는 통합진보당 또는

지방선거 이색 출마자

20~30대 크게 늘어

세무사·한의사·건축사

전문가 그룹도 상당수

노동당 소속 예비후보라는 특징이 있다. 반면, 70대 예비후보는 광주·전남에서 10명에 그쳤다.

◇ 이색 직업 및 공기업 직원도 출사표를 던졌다. 광주 서구의원 다 선거구에 도전한 김경환(33) 예비후보는 한국 농어촌공사에 근무중이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김동현 광주 동구의원이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다니며 선거운동을 펼쳐 구의회에 입성했다. 택시·버스 기사도 눈에 띄었다. 광주 동구의원 선거에 도전하는 정수복(59) 예비후보는 교사 출신에 건설사 대표를 역임한 뒤 현재 택시운전을 하고 있다.

◇ 이주여성도 출사표=40대 결혼 이주여성인 도누안 애밀리아(45·필리핀)씨가 목포 기초의원(아 선거구) 예비후보로 등록해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첫 이주여성 후보가 됐다. 애밀리아씨는 목포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하며 20년째 거주하고 있다. 애밀리아씨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다면 광주·전남에서는 첫 이주여성 지방의원이 탄생하게 된다. 그는 필리핀 이주여성단체 회장 등을 맡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전문가 그룹도 상당수=김정 평가사, 세무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건축사 등 이른바 ‘사(士)’자 직업인 전문가도 상당수다.

광주시의원(서구 2) 선거에 나선 김길수(44) 예비후보는 세무사로, 예산의 계획·수립·집행 등 꼼꼼한 의정활동으로 광주시의 예산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광주시의원(남구 3) 선거에 출마한 범상운(42) 예비후보는 김정 평가사로, 도시계획 및 재개발·재건축 등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며 ‘광주를 재평가하겠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밖에 한의사인 조옥현(44) 예비후보가 목포 2선거구에서, 치과의사인 김왕근(56) 예비후보는 장성 2선거구, 수의사인 김기철(45) 예비후보는 화순 2 선거구에서 전남도의원에 도전하고 있다.

◇ 이주여성도 출사표=40대 결혼 이주여성인 도누안 애밀리아(45·필리핀)씨가 목포 기초의원(아 선거구) 예비후보로 등록해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첫 이주여성 후보가 됐다. 애밀리아씨는 목포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하며 20년째 거주하고 있다. 애밀리아씨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다면 광주·전남에서는 첫 이주여성 지방의원이 탄생하게 된다. 그는 필리핀 이주여성단체 회장 등을 맡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여행길의 즐거운 동반자!!!

대표전화.

(062) 234-3222

FAX. (062)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2가 151-1번지



대표이사 최 금 환

<http://www.joystour.kr>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인천공항에서 떠나는 터키여행

특가!! 4/25일 단 하루!!

터키 일주 8일

1,390,000

*포함사항 : 현지 국내선2회, 특급호텔 5박, 멜리랜드, 유람선, 이스탄불여행

*불포함 사항 : 개인적인경비, 유류세, 기사&가이드 팀

5월 2일~7월 12일까지!!

매주 토요일 출발!!

터키항공으로 떠나는 터키일주 9일

2,590,000~

*포함사항 : 공동경비, 유류영수증, (W460,000/2주기준), 싱글차

무안공항에서 MU로 떠나는 중국여행!!

상해/영파/신선거/설두산 4일 769,000

상해/설두산/신선거/주각 5일 869,000

아시아나로 떠나는 북경 태왕산 매주금 출발

ALL포함 북경 태왕산 1,050,000

목포 MBC 와 함께 떠나는

상해/영파/신선거/설두산 4일

798,000

출발날짜 2014년 4월 2일, 9일, 11일, 18일 (총 5회 확정)

*불포함 사항 : 여권 및 개인경비

※ 불포함 사항 : 여권 및 개인경비 국내수송

※ 불포함 사항 : 여권 및 개인경비 국제수송

※ 불포함 사